

한라시론



유 동 현
진로·취업컨설팅 편집장 대표

작은 소리가 잘 들린다

늘 들어오는 신입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신입이 새로운 조직이나 일터에 가서 일을 배울 때, 선배적인 사수는 많이 답답하다. 개구리가 울듯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하는 것이 답답하거나 자연스럽게 큰 소리가 나온다.
올해 오랜 기간 장마로 인해서 집 옥상에 누수가 생겼다. 아랫층인 2층이 물난리가 났다. 천장까지 다 뜯어내고 방수까지 하느냐고 돈 좀 들었나. 마지막에 도배공이 오셔서 도배

를 해 주시는데 혼자 오셨다. 왜 혼자 다니느냐고 물어보니, 사람 구하기가 힘들단다. 젊은 사람이 배우려고 왔다가 1달도 못 버티고 때려치운단다. 그래서 45세인데도 이 분야에서 막내라고 했다. 이 분의 말을 듣자면 이 분야에 들어온 신입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신입들도 할 말이 있다. 제일 크게 기본 상해하는 것이 인격적인 무시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형그리 정신으로 좀 불합리한 대우나, 고생을 해도 참고 견디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은 조금 적게 벌어도 워라밸 'Work-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해 일 못지않게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비인격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면 당장 그만둔다.
형들목수 양성공인 한 신입의 예를 통해서 이들을 교육하는 한가지 팁을 제안한다. 이 분야에 처음인 그

도 첫날부터 어리버리하고, 서투르고, 멍때리는 행동을 하나씩 선배들의 호통소리가 날라왔다. 이전에 플랜트건설 분야에 일한 경험이 있지만, 아파트 건설현장의 분위기는 또 사뭇 달랐다. 배관 관련 일한 경험이 있지만, 목수 일은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라든가 조직문화가 많이 달랐다. 상황 파악도 안되어서 허둥되니까 '야! 뭐하냐!' 선배들의 호통소리가 났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매일 이런 호통소리를 듣다 보니, 일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힘들었다. 매일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었다. 큰 소리 내는 선배들을 피해 다니면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한 선배가 조용히 뒤에서 챙겨주었다.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반나절 동안 지켜보다가 일하는데 부족한 부분이냐, 일하는 노하우에 대한 팁을 하나씩 얘기해줬다. 나지막이 조

용히 얘기해 주는데도, 큰 소리로 혼내면서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귀에 속속 들어왔다. 큰 소리로 화내면서 알려주는 것들은 단지 웅웅거리거나 소음처럼 들리고, 일론 이 위기에 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 반면에 작은 소리로 조용히 알려주는 조언들은 귀에 속속 들어왔다. 큰 소리로 화 내는 무서운 선배들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긴장해서 더 실수를 하게 되었다. 반면에 조용히 얘기해주는 선배들의 조언은 마음을 편하고, 고민하던 문제들의 답이니까, 머리 속에 속속 들어왔다. 지난 1달, 6개월, 1년을 돌이켜보면, 작게 조용, 조용히 알려주는 선배들 조언이 훨씬 큰 도움이 되었다.
후배들, 신입들을 가르칠 때 큰 소리로 화내면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차분히 가르쳐 주자. 사랑이 담긴 작은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

사설

제2공항 여론조사, 도민의견 잘 담아내야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의견 수렴방식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그렇습니다. 제주 최대 현안이자 갈등으로 점철됐던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3일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산읍 주민에 한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의견차가 발생, 향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특위 위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복수의 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기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며

"제주도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갈등특위는 조만간 제주도와 추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추진됐던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여론조사로 갈 경우 도민의견을 얼마나 충실히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여론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주도나 도의회가 서로 여론조사와 관련 공수를 부릴 경우 자칫 더 큰 갈등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도 의견차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2공항으로 촉발된 갈등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복수의 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기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수요 '부조화' 대책을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읍·면과 동 지역간 큰 수요차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동 지역은 택지 확보 어려움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높은 수요를 보이는 반면 읍면 지역은 물량 확보에도 낮은 경쟁률에다 남는 물량도 발생할 정도입니다.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임대주택을 찾는 주거취약계층들이 많은 얘기입니다.
제주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싸게 임대해 주는 매입대주택 467세대 예비입주를 접수한 결과 831세대 신청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시권 매입대주택 288세대 모집에도 652세대가 몰려 높은 선호도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애월읍 지역에 67세대 모집에 85세대 신청인 반면 동지역은 221세대 모집에 567세대가 몰렸습니.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선호도 못지않게 읍면동별 큰 수요차에 있습니다. 작년 9월 LH의 애월 구좌 한림을 등 3개 읍 70세대 모집의 경우 63세대 신청에 그쳐 모집을 다 못채웠습니다.
도는 서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행복·국민임대·영구·매입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1만세대를 공급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승인 기준 5523세대 건립이 추진중이고, 앞으로 감녕지구와 동부공원지구 사업 등을 추진하면 전체 물량 확보에는 '순항' 중입니다.
건국은 동지역 거주를 원하는 다수의 실수요자 충족에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동지역에 몰려 매입대주택 288세대 모집에도 652세대가 몰려 높은 선호도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애월읍 지역에 67세대 모집에 85세대 신청인 반면 동지역은 221세대 모집에 567세대가 몰렸습니.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편집국 25시

공통 분모



이 상 민
행정사회부 차장
hasm@ihalla.com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가 아니라 공통분모다"
'지역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저자인 채사장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신과 나, 과거와 미래 사람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교양, 인문학이라고 했지만, 일상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분모는 아무래도 공통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아무리 내가 군대 얘기를 해봤자 아내의 표정이 심드렁한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이 관심 밖이라서 그럴 것이다.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상대방 관심에서 벗어난 대화는 꼬리를 물지 못하고 쉽게 단절된다.
지금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당장 머리 속

에 먹고 사는 문제가 떠오른다. 코로나19로 삶은 속대밭이 됐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고용시장 침체로 실업 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쉬는 이들을 우린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도정의 관심은 이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 도정을 이끄는 원희룡 지사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 지사의 최대 관심사가 아무래도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틈만 나면 서울로 올라가 대권 행보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는 원 지사다. 중앙언론과의 인터뷰 일정을 없는 시간도 쪼개 만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의 고충을 듣는 대화와 소통엔 왜 그리 인색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도지사 일정을 찾아봐도 상인 또는 주민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원 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제주가 사는 길이라며 그의 대권 도전이 나의 최대 관심사라고 얘기한다면 할말은 없다. 하지만 대신은 아직도 500일이나 남았다. 먼 미래에 관심을 쏟기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절박하지 않은가.

뉴스-in

원희룡지사 자가격리 '화들짝'

음성 판정 받고 업무 복귀
○...故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음성 판정을 받아 다시 업무에 복귀.
원 지사의 코로나19 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 출입구 야외 취재단·방문자는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하면서 실시.
도 관계자는 "원 지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급재난 문자를 받고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 이태원기자
제주항공·군산시 MOU
○...제주항공이 4일 전라북도·군산시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산-제주노선 정기편 운항 및 군산공항 활성화에 동참. 이번 협약으로 제주항공은 전

북도민의 항공 교통편의를 위해 항공 수요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고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재정 지원과 홍보·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
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공항공사 군산지사와 취항 항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공항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첨언. 고대모기자
"파업 하루 전 계획 밝힐 것"
○...오는 6일 제주 돌봄전담사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만 기다리는 등 수동적 자세로 일관해 반축.
4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6일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아직 방침을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며 "교육부 방침이 4일 오후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 5일쯤 대응 계획을 밝히겠다"고 언급.송은범기자

부 고
김이완(제주지방경찰청) 아버지 김해김공 은형(수의사·前 서귀포시 보건소장·향년 67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4일 오후 4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6일(금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제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한울누리공원
부 인 고 예 심
아 들 김 이 완
딸 김 승 리
※ 연락처 : 고예심 010-3639-0566
김이완 010-9280-2210
김승리 010-8664-3518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영랑(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기가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아 들 송 명 수
며 느 리 박 정 심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유원호(1934. 7. 5생)
•최후주소 : 제주시 거로길 41-2, 2동 101호 (화북이동, 인성빌라)
상기자는 2020년 9월 1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0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단4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 처 : 제주시 오광로 94,103동 203호 (이호이동, 노원리초하임테라스파크)
2020년 11월 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유해자, 유경의, 유정훈, 유지훈, 유진희, 유석훈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료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심마음 작물과 소풍
고사리뿌리, 동글레뿌리
제주먹고사리뿌리와 동글레뿌리
땃밭 전,밭,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약용작물 품종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귤 신제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